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Feature

가격은 선택, 낭만은 필수 해외 신혼여행 상품

■ 글/임동근 기자·사진/하나투어 제공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돌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는 신혼여행 비교적 짧은 일정이지만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여행이다. 그러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혼여행 상품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좀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이고 후회 없는 신혼여행을 위해 여행사들의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신혼여행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한 여행사나 가이드로 인해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신혼여행 피해 사례를 보면 여행 일정 및 숙소의 임의 변경, 가이드 불친절, 여행사별 상품 가격 차이 등으로 행복해야 할 시간을 완전히 망친 신혼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복하고 만족스런 신혼여행을 위해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렛츠고리조트, 리조트라이프가 팔고 있는 태국 푸켓의 반얀트리 리조트 풀빌라 5일 상품 중 비교적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비교해봤다. 상품 가격은 오는 4월 출발 상품이 최저가 기준으로 하나투어 209만9000원, 렛츠고리조트 192만 원, 리조트라이프 213만 원이다. 이 상품들은 모두 개별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상품 가격에 포함된 옵션을 보면 하나투어가 5개, 렛츠고리조트가 6개, 리조트라이프가 8개이다. 그러나 렛츠고리조트와 하나투어는 가격이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옵션만을 볼 경우, 렛츠고리조트가 가격 대비 포함된 옵션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식사에서는 세 상품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전의 경우 하나투어와 리조트라이프는 와인 및 과일바구니를 제공하고, 렛츠고리조트는 향수와 포푸리, 수중카메라를 선사한다. 취향에 따라 선택할 문제지만 같은 조건에 일정이 비슷할 경우 렛츠고리조트의 상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푸켓 반얀트리 리조트 풀빌라 5일 상품 비교

하나투어

가격 209만9000원
항공권 스카이스타
포함된 옵션 전용 타이마사지, 코끼리트레킹, 관타지쇼, 피피 섬·왓차롱 사원 관광
식사 리조트식 4회, 현지식 1회, 해산물 뷔페, 관타지 다녀, 타이난 뷔페(아시아 음식), 오아시 일식 뷔페
특전 와인 및 과일바구니

렛츠고리조트

가격 192만 원
항공권 아시아나항공
포함된 옵션 아로마 스파, 허브사우나, 코끼리트레킹, 관타지쇼, 팔아 만 관광, 바통 나이트투어
식사 리조트식 4회(2회는 바다가재 포함), 현지식 1회, 오아시 일식 뷔페 또는 MK수끼

리조트라이프

가격 213만 원
항공권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포함된 옵션 아로마 스파, 전통 타이마사지 및 발마사지, 허브사우나, 코끼리트레킹, 사 이언쇼, 바통 나이트투어, 산호 섬 관광
식사 리조트식 4회(1회는 바다가재 포함된 캔들라이트 다녀), 현지식 2회, 한정식 1회, 타이난 뷔페, 오아시 일식 뷔페 또는 MK수끼
특전 와인 및 과일바구니



이시 일식 뷔페, 판타지 디너, MK수끼
특전 반안트리 '7Days 향수' 와 백걸
이용 오후리, 수중카메라

하나투어 푸켓 르메르디앙 비치 리조트 5일 상품 가격 비교(4월 중순 기준)

이용 항공편	상품가(1인)	2명일 경우	조기 예약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124만9000원	249만8000원	최대 20만 원(90일 전)
스카이스타 항공	139만9000원	209만8500원	없음

신혼여행 상품은 2명이 함께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1인당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여행사들이 신부 반값이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부 반값이나 무료, 할인 상품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는 것일까?

하나투어의 푸켓 르메르디앙 비치 리조트 5일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고 현지에서의 일정과 식사, 객실이 똑같은 상품이지만 이용항공편에 따라 가격과 혜택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124만9000원, 스카이스타 항공을 이용하면 139만9000원이다. 그러나 2명 요금을 계산해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편의 상품은 249만8000원이 되지만 스카이스타를 이용하는 상품은 신부에게 반값을 적용하므로 2명을 합한 요금은 209만8500원이 된다. 4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셈이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상품은 1상에 신청금 입금 기준으로 90일 전 20만 원, 60일 전 15만 원, 30일 전 10만 원 등 조기 예약에 따른 할인이 적용된다. 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고집한다면 90일 전에 예약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행사별 푸켓 르메르디앙 비치 리조트 5일 상품 할인 혜택 비교

여행사	상품가	할인 혜택	이용 항공편	객실	2인 상품가
하나투어	139만9000원	신부 반값	스카이스타	슈퍼리어 가든뷰	209만8500원
모두투어	174만9000원 169만9000원	신부 반값 신부 반값+ 조기 예약 20만 원	타이항공 아시아나항공		262만3500원 234만8500원
롯데관광	169만9000원	없음	대한항공	슈퍼리어 풀뷰	339만8000원

여행사별 푸켓 르메르디앙 비치 리조트 5일 상품 옵션 및 특전 비교

하나투어

상품가 139만9000원

포함된 옵션
빠롱 디스커버리 투어, 전통 안마 1시간, 판타지쇼, 피피 섬 및 팡야만 관광
식사 리조트식 4회, 현지식 1회, 판타지 디너, 해산물 뷔페, 이슬람 해산물, 삼겹살
특전 와인 및 과일바구니

롯데관광

상품가 169만9000원

포함된 옵션
피피 섬 및 팡야만 관광, 태국 전통 안마 1시간, 허브 사우나, 얼굴 마사지, 빠롱 나이트투어, 판타지쇼, 코끼리트레킹
식사 리조트식 4회, 현지식 1회, 선상 뷔페, 해산물 뷔페, 오이시 일식 뷔페, 한정식
특전 여행을 가방 또는 면세점 상품권(10만 원 권) 중 선택, 스포츠타월

모두투어

상품가 174만9000원 / 169만9000원

포함된 옵션
산호 섬 관광, 전통 허브 사우나, 피피 섬 및 팡야만 관광, 판타지쇼, 코끼리 트레킹
식사 리조트식 4회, 현지식 1회, 타이안 뷔페, 이슬람 해산물, 오이시 일식 뷔페, 한정식
특전 와인 및 과일바구니



할인 혜택은 여행사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의 푸켓 르메르디앙 비치 리조트 5일 상품을 비교해보면 1인당 가격은 하나투어가 139만9000원, 모두투어가 174만 9000원, 롯데관광이 169만9000원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상품은 신부 반값이 적용되는 반면, 롯데관광은 할인 혜택이 없다. 그러나 서로의 상품 일정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곳이 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단 할인 혜택에 따른 2인 비용을 계산할 경우, 하나투어 209만8500원, 모두투어 262만3500원·234만8500원, 롯데관광은 339만8000원이다. 물론 롯데관광처럼 전망이 더 좋은 풀뷰를 이용한다면 1인당 5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만 여전히 롯데관광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함된 옵션과 특전에서 롯데관광은 허브 사우나와 얼굴 마사지를 포함했으며, 다른 여행사가 와인 및 과일바구니를 제공하는 대신 여행용 가방이나 면세점 10만 원 상품권, 스포츠타월을 선물한다. 식사에서는 낭만적인 선상 뷔페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인 신혼여행을 할 것이냐, 낭만적인 여행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신혼여행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객실이 더 좋다. 사람들이 낭만적이고 약간의 호화로운 들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객실 시설이나 전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커플이나 리조트나 객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일정인 경우에는 더 좋은 객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편 동일한 여행사가 내놓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나투어의 ‘발리 파트마 세 풀빌라’ 5일 4월 13일 출발 상품의 경우 오전 10시 35분에 출발하는 상품은 169만9000원, 오후 8시 10분에 출발하는 상품은 174만9000원으로 5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인천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30분으로 같으며, 여행 중 일정과 포함 내역, 특전이 모두 같다.

일반적으로 오전에 출발하는 상품이 현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오후에 출발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다.

이유는 이용 항공편 때문이다. 오후 출발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반면, 오전 출발은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이용하고 있다. 좀 더 경제적이고 여유로운 일정을 원한다면 가루다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

다른 공간, 특별한 느낌! 뜨는 신혼 여행지

여행사별 나트랑 3박 5일 여행 상품

여행사	상품 종류	리조트	항공편	가격(3월 기준)
하나투어	휴양	빈필	아시아나항공	149만9000원
모두투어	휴양+관광	빈필	베트남항공	114만9000원
롯데관광	휴양+관광	빈필	베트남항공	119만9000원
해피히니클럽	휴양+관광	빈필, 아난다라, 선라이즈	베트남항공	139만 원~
	휴양	에비슨 하이드어웨이	베트남항공	169만 원~

최근 대한항공 기내지 ‘스카이뉴스’가 국내 여행사 대표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신혼여행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리가 1위, 태국 푸켓, 필리핀 세부, 몰디브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대한항공 승무원들

이 꼽은 신혼여행지로는 하와이가 1위, 취리히, 라스베이거스가 그 다음이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혼여행지를 고를 때는 커플의 취향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푸켓, 세부, 발리 등 동남아 휴양지가 전체 신혼여행 커플의 60% 이상이 선택했을 정도로 가장 선호되었고, 커플들은 남태평양과 유럽을 그 다음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남태평양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신혼부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비 지출이 늘더라도 고급스러운 휴양 리조트를 선택하고, 장거리 노선을 타고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활동적인 커플은 배낭을 메고 유럽이나 호주로 떠나기도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신혼여행지를 소개한다.

베트남 나트랑(Nha Trang)

베트남어로 ‘나짱’이라 불리는 나트랑은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져 있는 휴양지이다. 1년 중 300일 이상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곳으로 연평균 기온은 26°C이며, 후텁지근한 베트남에서도 습도가 낮아 여행하기에 좋다.

눈부시도록 새하얀 모래사장이 6km에 걸쳐 뻗어 있고, 에메랄드빛 바다 너머로 작은 섬들이 떠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또 스노클링, 제트스키,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에바손 하이드어웨이(Evason Hideaway), 아나만다라(Ana Mandara) 리조트, 빈펄(Vinpearl) 리조트 등 최고급 시설을 갖춘 리조트는 물론 저가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아 숙소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신혼여행지는 물론 개별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아직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지 않아 허니문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롯데관광은 일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피허니문 클럽이 허니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3박 5일 상품을 보면 호치민에서 1박, 나트랑에서 2박이 기본 구성이다. 해피허니문 클럽의 에바손 하이드어웨이 상품은 첫날 저녁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치민에 도착 후 1박을 하고 이틀째 오후에 나트랑의 리조트에 도착해 자유 시간을 가지며, 3일째에는 자유시간이나 선택 관광을 즐긴다. 4일째에는 호치민으로 이동해 시내 관광을 한 후 5일째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하나투어의 빈펄 상품도 비슷한 일정이다. 반면 해피허니문 클럽, 모두투어, 롯데관광의 빈펄 상품은 머드팩, 전신마사지 등 상품별로 옵션들이 포함돼 있다.

가격 면에서는 해피허니문 클럽이 전문 신혼여행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대신 여행자에게 여행가방과 수중카메라를 선물하고, 면세점 할인권, 환전수수료 우대권을 증정하며, 여행 후기 작성 시 문화상품권(2만 원)을 제공한다.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해피허니문 클럽의 에바손 하이드어웨이나 하나투어의 빈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트랑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직항편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호치민까지 5시간 30분, 호치민에서 나트랑까지 50분을 항공편으로 이동하고, 나트랑 깜냥 공항에서 자동차(50분)와 보트(20분)를 이용해 리조트로 이동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신혼여행으로는 이동 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비교적 덜 알려진 색다른 곳을 찾는 커플에게 적당한 곳이다.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인 태평양 남서부의 뉴칼레도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휴양지이다. 깨끗한 자연과 프랑스를 옮겨 놓은 듯한 도시의 모습, 연평균 23°C의 온화한 기후로 ‘영원한 봄의 땅’이란 별칭이 따라붙는다.

프랑스의 해변 휴양지를 떠올리게 하는 누메아, 스노클링과 스킨스쿠버를 통해 오색의 열대어와 산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메데섬, 하얀 산호 모래사장 등은 타히티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행사별 뉴칼레도니아 6일 여행 상품

여행사	리조트	식사	포함 특전 및 옵션	가격(3월 기준)
하나투어	코랄팜 2박, 르메르디앙 1박	중·석식 3회 불포함	없음	285만 원
	르메르디앙	석식 2회, 중식 3회 불포함	카나드(Canards) 섬 관광	325만 원
모두투어	라마다플라자	중·석식 4회 불포함	과일바구니	219만 원
	르메르디앙	석식 2회, 중식 3회 불포함	얼리 체크인, 석식 쿠폰 2장	299만 원
리조트뱅크	코랄팜 2박, 르메르디앙 1박	석식 2회, 중식 4회 불포함	과일바구니와 와인	246만5500원~
	르메르디앙		없음	225만6500원~
	피크로열 1박, 우레캣찌 2박		과일바구니	218만500원~
탑허니문투어	르메르디앙	석식 1회, 중식 4회 불포함	없음	249만9000원

뉴칼레도니아 신혼여행 상품은 주로 기내 2박을 포함해 6일 또는 7일 일정으로 구성된 휴양형이다. 직항편이 없으므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간 후에 어칼린으로 갈아타야 한다. 나리타공항에서 뉴칼레도니아까지는 9시간 정도 걸린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뉴칼레도니아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2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코랄팜 리조트, 르메르디앙, 라마다플라자 등 이용 리조트 및 리조트 사용 일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진다.

6일 상품의 경우 하나투어 코랄팜리조트가 3월 중순 기준으로 285만 원, 르메르디앙이 325만 원, 모두투어는 라마다플라자 219만 원, 르메르디앙 299만 원, 리조트뱅크는 파크로열리조트 218만 500원~, 르메르디앙 225만6500원~, 코랄팜리조트 246만5500원~, 탑허니문투어는 르메르디앙이 249만9000원 등이다.

에어칼린이 오는 6월 22일부터 인천-누메아 구간의 직항편을 주 2회(화·일요일) 운항할 예정이어서 뉴칼레도니아로의 여행객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top](#)